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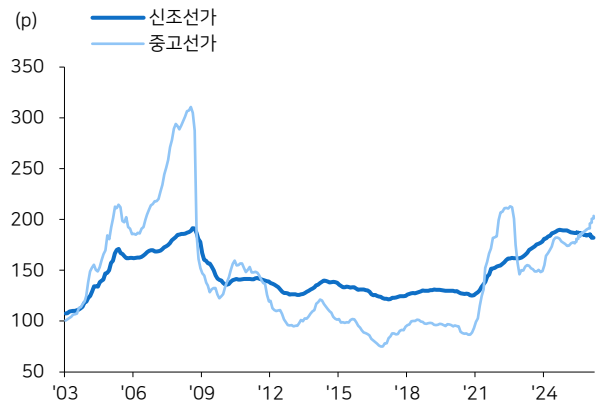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1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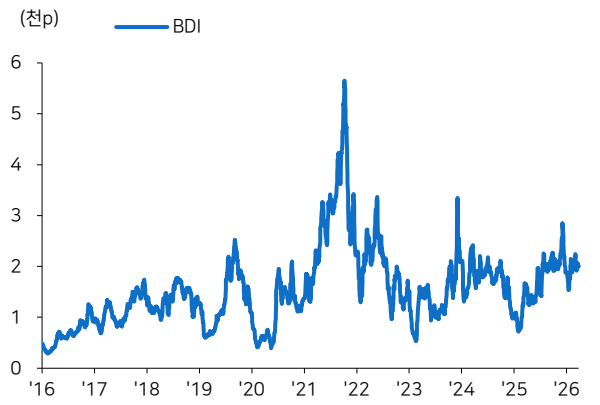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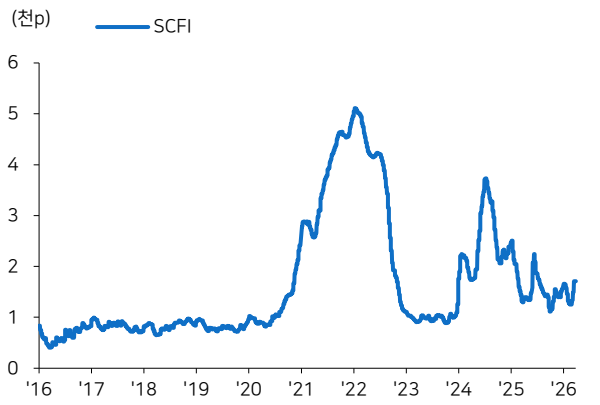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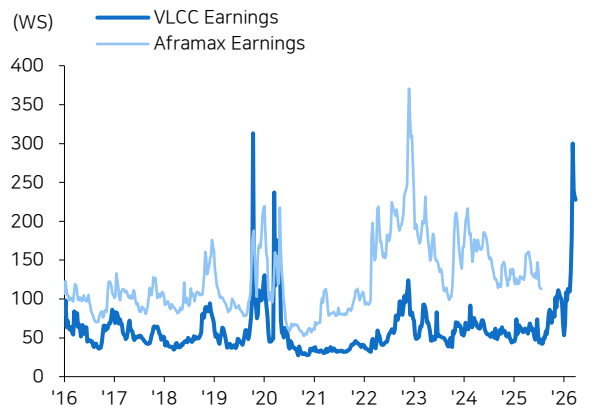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31.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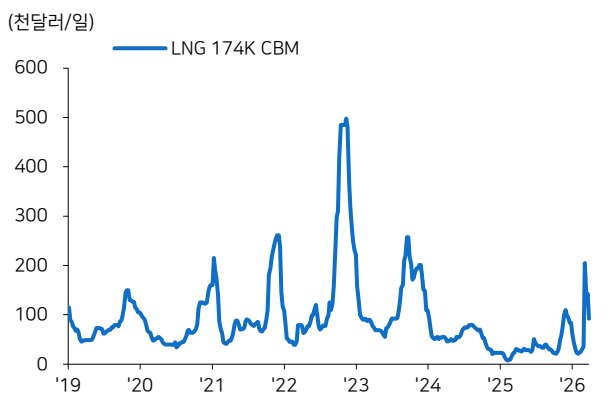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26.8p (+120.3p WoW)



VLCC Spot Rate 227.5WS (-4.1p WoW)



LNG Spot 운임 92.5천달러 (-5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이 대통령, 오늘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방산·조선·원전 협력 논의 (뉴시스) https://zrr.kr/3sFDCM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 후 약 5개월 만이라고 보도됨.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인공지능,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으로 전해짐. 특히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수출 협약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함정 및 방공무기 등 타 분야로의 방산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알려짐.

HD 현대, 조선소 짓는 법도 수출한다… '플랫폼 기업' 도약 시도 (국민일보) https://zrr.kr/p8zQBr

HD한국조선해양이 제52회 주주총회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플랫폼 공급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신규 조선소 건설을 원하는 국가나 기업에 공장 설계부터 AI 기반 3D 모델링, 차세대 CAD 등 스마트 공장 운영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수주 경기에 민감한 전통적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 자산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특히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조선 자립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수출하여 유지·보수 등 후속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Hanwha Ocean taps ExxonMobil veteran to run shipping unit (TradeWinds) https://zrr.kr/h6bjpZ

한화오션이 미국 해양 분야의 베테랑인 James Sagar를 한화쉬핑의 신임 CEO로 임명하고, 해양 기술 및 탈탄소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신설 부서인 Hanwha Maritime Solutions의 사장으로 발령했다고 보도됨. ExxonMobil에서 약 30년간 운영, 기획, 공급망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온 James Sagar이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에 합류한 지 5개월 만이며, 전임자였던 Ryan Lynch의 뒤를 이어 미국 해양 산업의 재산업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끌게 됐다고 전해짐. 한화쉬핑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물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한화의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Woodside homes in on preferred shipowner duo for raft of LNG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LjBlb1

호주 에너지 대기업 Woodside Energy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조 LNG 운반선 입찰에서 Maran Gas Maritime과 Seapea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보도됨. 이번 입찰은 Woodside Energy가 미국 Louisiana LNG 및 호주 Scarborough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LNG 공급 점유율을 5%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양사는 각각 최소 2척씩의 선박을 제공하여 기존 노후 선박 대체 및 신규 물량 운송을 담당할 전망으로 전해짐. 특히 Maran Gas Maritime은 최근 한화오션에 발주한 척당 2.5억 달러 규모의 LNG선 2척을, Seapeak는 삼성중공업에 발주할 신조선을 이번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오는 4월 7일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알려짐.

Laskaridis Shipping doubles down on debut suezmax order in South Korea (TradeWinds) https://zrr.kr/lJWHEy

그리스 선사 Laskaridis Shipping이 지난 1월 대한조선에 발주한 2척의 선박에 이어 최근 세 번째 Suezmax급 원유 운반선 옵션을 행사했으며, 4월 중순 기한인 네 번째 선박의 옵션 또한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해짐. 이번 신조선의 가격은 척당 약 8,900만 달러로 지난 1월 대비 상승했으며, 인도 시점은 2029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짐. 당초 HD현대와 논의하던 MR2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4척의 건조 계획은 무산됐다고 전해지며, 대신 Lavinia Tankers라는 신설 법인을 통해 Suezmax급 중심의 원유 운반선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 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차세대 구축함 전시 (연합뉴스) https://zrr.kr/ieXCqU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4월 1일부터 개최되는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YIDEX)'에 참가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집약된 차세대 구축함과 글로벌 수출 모델인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을 선보인다고 보도됨. 이번 전시에서 한화오션은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다층 방어체계를 갖춘 차세대 해상전투 플랫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독보적인 함정 기술력을 각인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